

'식사비 대납 의혹' 후보 등록날에도 진실공방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원택 후보 측 수행원과 당시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민주당 청년당원 2명이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말경 정음의 한 식당에서 있었던 간담회 상황에 대해 해명했다.

이원택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식당 업무와 일부 식사모임 참석자들이 밝힌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규명 차원으로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당시 이 후보의 운전 기사 겸 수행원이었던 김동균 씨와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당원 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당시 모임이 문화예술 분야 청년들과의 간담회 성격이었다고 설명하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부채조달을 위한 식사 제공은 인식하지 못했다.

청년당원 참석자들은 "당시 모임은 문화예술 청년 관련 간담회로 알고 참석했다"며 "이날 모임 식사비는 평소 청년 조직에서 걷는 회비로 처리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를 보고 나서야 식대가 제대로 결제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이원택 후보 측 수행원, "15만원 식당에 놓고 나왔다" 모임 참석자들 "식대, 회비로 처리된 줄 알았다" 해명

덧붙였다.

또 한 참석자는 "이 후보가 먼저 자리를 뜬 뒤에도 청년 참석자들이 10~20분 정도 더 남아 있었다"며 "여러 명이 계속 자리에 있었던 것을 봤다"고 설명했다.

김동균 씨는 이 후보자와 일행의 식사비용 계산 과정에 대해 "당시 식당이 매우 혼잡했고 업무가 계산과 고기 굽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며 "업무가 이 후보자 일행의 비용을 결제하겠다고 하자 업무는 단체라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이 이 후보자와 K 의원 그리고 수행원인 자신의 식사비용을 스스로 산정해 계산대 인근에 현금을 올려 놓고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식사비용이 15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 돈을 두고 나왔으며 업무와 눈을 마주친 상태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사모임 참석자는 "이 후보가 외부를 임의로 계산할 지시하는 듯한 말과 제스처를 봤다"고 주

장했으. 김 씨는 "평소 눈빛이나 손짓으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해 표현 방식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날 식사 모임 참석자들은 당시 참석자 명단이나 구체적인 회계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씨 또한 "수행 업무 특성상 전달받은 일정에 따라 움직였을 뿐, 모임 주체가 참석자 구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해 11월 말경 정음의 한 식당에서 열린 이 후보자와 K 도의원과 민주당 청년 간담회 과정에서 식사비용 결제를 식사 후 며칠이 경과한 후 K 도의원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카드로 결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한 인터넷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파반파로 확대되어 민주당 중앙당의 윤리 감찰이 이어지는 등 민주당 도지사 선거 경선 과정에 많은 논란과 함께 부실 윤리 감찰이라는 논란까지 벌어진 바 있다. /1만호 기자

음식점 업주 "음식 준비하기 바빠... 누구에게 돈 건넸는지 실제로 전달했는지 직접 보지 못해"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카드로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 업주는 논란이 된 식사 자리에 대해 "분위기가 간담회라기보다는 친목 모임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 플래카트라 유인물도 없었고, 특정한 행사 형식도 아니었다"며 "이 후보는 참석자들의 식사가 거의 마무리될 때 함께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A 업주는 최근 자신이 경찰조사와 민주당 윤리 감찰단 조사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경찰조사에서도 지금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게 진술했다"며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합법이나 회유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기자들이 윤리감찰단 조사 방식에 관해 묻자 "2회에 걸쳐 전화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당시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민주당 청년당원 2명도 함께 나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 이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며 "우리는 현장에서 본 그대로를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청년당원 중 한 명은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은 보지 못했다고 했고, 본 것은 사실대로 말했다"고 밝혔다.

또 "이원택 후보가 이야기한 '내발적 발전전략'에 대한 이야기와 조 금만 더 빨리 출마했으면 지금보다

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의구심이 든다"며 "이원택 후보 내선을 목적으로 여론을 혼탁하게 만들려는 배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경찰이 이원택 후보를 포함한 대부분 관계자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사실 왜곡과 이를 활용

하지율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당 자리가 "청년 간담회라기보다는 식사 모임에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통상적인 청년 간담회라면 청년들이 건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인데, 그날은 특정 인물이 중심이 돼 발언하는 형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인 커뮤니티 지역 발전 이야기가 오갔고, 견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식사비 정산 과정에 대해서는 "현금을 걷는 장면이나 돈을 전달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처음부터 회비를 걷는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자신들도 현금을 내거나 계좌이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식사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했고, 이후 이원택 후보는 차량을 타고 먼저 자리를 떠났다고 증언했다. 이어 "일부 참석자들만 남아 후식을 먹고, 나머지는 인근 카페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카페 비용에 대해서는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다른 참석자가 결제한 영수증이 제출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해 11월 말경 정음에서 열린 청년 민주당 당원들의 식사 자리에서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방문카드로 식비가 결제됐다는 의혹이 한 인터넷 언론에 의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은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조사 등을 통해 당시 모임 성격과 식사비 결제 경위 등을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1만호 기자

이원택 후보측 "허위사실 공표·선거방해 강력 대응"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이원택 후보 측이 14일 전북도의회 법안위원회 정음 식당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A업주와 청년당원 2명의 기자회견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와 선거방해 행위에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수사결과 하위법외 발표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인 선거방해 세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음지역 식당 업무 A씨와 당시 식사 모임에 참석했던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당원 2명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보도자료에서 "이원택 후보와 보좌진은 모든 식비에 대해 본인 부담 원칙을 유지해왔다"며 "문제가 된 정음 식당에서도 이 후보와 보좌진 4인이 약 15만원 상당의 식비를 직접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선관위 보도자료에도 A 도의원이 해당 식당에서 제공받은 음식물 금액은 58만1,600원으로 명시돼 있다"며 "A도의원이 결제한 총액 72만17,000원과 비교하면 약 15만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당시 이 후보 측이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제

외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당 업주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현금 지급 정황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해당 식당 주인은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계산대 위에 현금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고, 부족한 금액은 나중에 와서 준다고 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도 설명했다. "현금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자회견 시점과 관련해 "선거를 20여 일 앞둔 시점에서 기자회견이 열린 것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

는 것 아니냐는 강한의구심이 든다"며 "이원택 후보 내선을 목적으로 여론을 혼탁하게 만들려는 배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경찰이 이원택 후보를 포함한 대부분 관계자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사실 왜곡과 이를 활용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식당 주인이 기자회견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회유·압박·협박 정황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은 "허위사실 공표와 악의적 의혹 유포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허위 주장을 조직적으로 확대·재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민들은 진실을 흐르는 정치공작과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1만호 기자

"전북 100년의 운명, 기회의 고속열차 타야"

민주 이원택 도지사 후보, 후보 등록 후 본격 선거전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14일 "전북 100년의 운명 앞에서 고립의 원형열차 아닌 '기회'의 고속열차를 선택해달라"며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원택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출사표를 통해 "지금 전북은 해방 이후 100년 만에 찾아온 거대한 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해소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 등 전북의 해법은 과제 가운데 중앙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협조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며 "서울 등 수도권 그리고 통합된 전남·광주



와 경쟁해야 하는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당·정·청의 힘을 끌어오지 못한다면 전북은 다시 변방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문턱조차 넘기 힘든 무소속 후보는 전북을 다시 소외와 차별의 늪으로 몰아넣는 고립의 원형열차일 뿐"이라며 "국비 확보 한 톨, 법안 통과 한 건도 혼자서 할 수 없기에 당·정·청에서 소외된 전북은 결국 국법취급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저 이원택이 운전하는 기회의 고속열차에 탑승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허리띠로 긴밀히 소통하고, 민주당의 전폭적인 입법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당·정·청 원팀만이 전북 발전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현대차 9조 원 투자 프로젝트 성공 △피지컬AI 중심도시 완성 △우량 공공기관 전북 이전 △가구당 1000원 연금도시 조성 △전라선 수서행 KTX 신설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후보 등록 직후 첫 일정으로 남원·임실·순창·장수 후보들과 함께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참배했다. /1만호 기자



약수하는 전주시장 후보자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 14일 전주시원산구선거관리위원회 3층에서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와 강성희 진보당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서로 약속을 나누고 있다.

"전북 발전 멈춤없이 계속돼야... 도민 선택 받겠다"

무소속 김관영 도지사 후보, 본격 선거전 돌입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1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정식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뛰어 들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등록서류를 접수했다. 그는 등록을 마친 후 "지난 4년의 성과는 모두 전북도민들과 한미애를 한 뜻이 되어 이른 것"이라며 "전북의 발전은 멈춤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전북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매머드급 선거대책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선대위 고문단에는 강현욱·유종근 전 전북지사와 정균환 새천년민주당 전 원내총무가 이름을 올렸고, 삼일선거대책위원장에 장재환 전 국회의원과 라승룡 전 농촌진흥청장이 위촉됐다.

공동선대위위원으로는 이광철·채수찬·김관수·전정희·이상우 전 국회

의원을 총괄선대본부장에는 현재 재선 도의원이면서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지 도의원이 임명됐다. 또 도민직능위원장은 정청래사법개혁지법도민대책위원회 나준균 위원장이 맡았다.

선대위 관계자는 "김 후보의 무소속 출마 소식이 수많은 민주당원들이 중앙당의 불이에 이랑까지 않고 자발봉사를 하게 해달라고 찾아오고 있다"면서 "선대위가 공식 출범한 만큼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를 심판하고 도민들의 상처 난 마음을 어루만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만호 기자

민주 박지원 후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이원택 국회의원의 전북도지사 출마로 인해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군산·김제·부안 선거구에 출마한 박지원 후보가 14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박 후보는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김제·부안·군산 대야·회현면 주민 여러분께 더욱 낮은 자세로 다가

가겠다"며 "주인 한 분 한 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김제·부안·군산 대야·회현면과 전북 발전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당 원팀의 힘으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1만호 기자

